

협회 회장사 및 임원사 초청, 간담회 개최



▶간담회에 앞서 협회를 대표하여 인사말을 하고 있는 박상진 회장



▶12개사 대표 및 총괄 책임자가 참석하여 첨단광학지원센터 설립 추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한국광학기기협회는 박상진 회장 주재 하에 임원사 대표들을 초청하여 9월 15일 강남 소재 대려도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협회 박홍재 부장의 진행으로 2009년 상반기 협회 업무보고 및 현재 협회에서 중점 추진 중인 ‘(가칭)첨단광학지원센터 설립’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이어서 참석자들의 자유로운 토론 속에 첨단광학지원센터 설립 추진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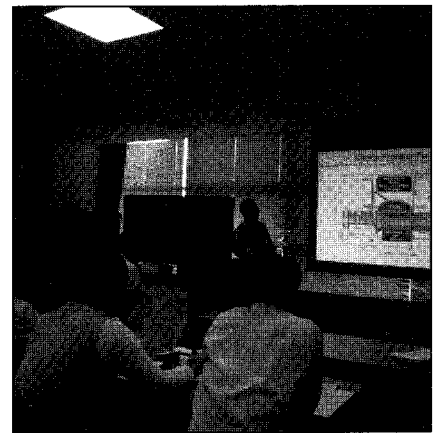
이 자리에는 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삼성디지털이미징 박상진 사장을 비롯하여 이오시스템 이원승 회장, 한광옵토 노원복 회장, 이오테크닉스 성규동 사장, 해성옵틱스 이을성 사장, 에스엔유프리시전 박희재 사장, 차바이오&디오스텍 박일 사장, 부원광학 박형기 사장, 산주 김기철 사장, 한국전광 송지홍 상무, 삼양옵틱스 이범수 이사, 한국후지제록스 김영철 전무 등 12개사 대표 및 총괄 책임자가 참석했으며 협회 우태주 상근부회장 및 협회 직원들이 함께했다.

일본 첨단 광전자 융·복합 기술 연수 실시

한국광학기기협회는 한·일 광산업 기술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9월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4박5일간의 일정으로 ‘첨단 광전자 융·복합 기술’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기간에는 일본 리츠메이칸대학교, 교토대학교 등에서 관련 교육을 받고, Isuzu Glass사 방문 등의 일정으로 짜여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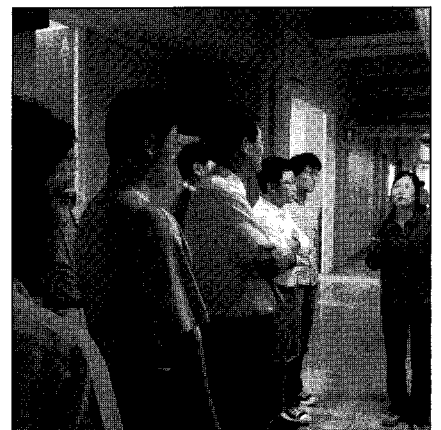
한국광학기기협회 우태주 부회장 및 이상현 과장의 인솔 하에 한국전광·범광기전·챔프다이아·태영광학·엠티엠옵틱스·차바이오&디오스텍·캐리마·그린광학·이오시스템·프리시전옵틱스·대호테크·동우옵트론·서울정광·라인텍 등 총



▶리츠메이칸대학에서 Tsutomu교수로부터 이론강의를 듣고 있는 광경



▶열심히 강의를 경청하고 있는 연수단의 모습



▶리츠메이칸대학에서의 이론강의를 마치고 실험실을 둘러 보며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는 광경



▶리츠메이칸대학에서의 연수일정을 마치고



▶교토대학에서의 연수일정을 마치고 연수단이 기념촬영을 했다.



▶Isuzu Glass사 관계자가 회사 현황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14명의 협회 회원사로 구성된 연수생들이 참가했다. 금번 연수 일정은 9월 28일 리츠메이칸대학교 다카시 교수로부터 태양전지 및 발광다이오드 LED 등에 관한 연수에 이어, 29일에는 교토대학교 노다 교수로부터 LED와 포토닉 크리스탈 등에 관한 연수를 받았다. 마

지막 날인 30일에는 설립이래 100여년간 광학산업을 주도한 일본광학회사인 Isuzu Glass사를 방문하고 프레넬 렌즈, 산업용 필터,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 등에 관한 소개와 상담을 받았다. 연수단이 연수기간동안 집중 교육 받은 내용은 태양전지와 LED에 관한

것이였다.

현재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태양전지의 걸림돌은 낮은 효율에 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이 각계에서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리츠메이칸 대학의 연구진들이 등근 구상 실리콘을 이용하여 효율을 높이고 박막형태로 제작하여 유연성을 부과한 연구결과는 우리 연수단이 경험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역시 주목받고 있는 발광다이오드 LED와 관련하여 교토대학에서 새로운 구조의 LED 개발을 위해 반도체 기술에 적용되는 InGaN의 base 위에 GaN의 p극과 n극을 접합하여 백색 LED를 제작하고 있는 연구내용 또한 쉽게 접할 수 없는 내용이었다. 우태주 한국광학기기협회 부회장은 “핵심광학부품을 일본에서 주로 수입하는 국내 광학산업의 상황 속에서 정밀광학기기분야의 핵심설계, 제작 기술 및 생산기술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할 때, 금번 연수가 비록 단기연수이긴 하나 국내 광학업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기획했다”며 “협회에서는 향후에도 국내에서 접하기 어려운 광학선진국의 광학 신기술 교육의 장을 마련하고,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연수자료 및 광학기술자료를 확보하여 관련 산업계가 정보공유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